

# 장흥댐 물이 안 팔린다

## 전남 서부 9개 시군, 협약 물량 절반에도 못미쳐

### 상수관 시설비 없고 주민 물값 부담 원인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다목적댐(15개)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장흥댐 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

전남 서남부 9개 시·군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목적으로 조성된 장흥댐의 물 공급이 협약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관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흥댐에서 목포·완도·강진 등 전남 9개 시·군에 1일 평균 공급량은 8만9000t. 이는 댐의 1일 최대 공급 계획량 20만t에 턱없

이 부족한 물량이다.

더욱이 담초 이들 지자체와 협약한 16만t의 공급량 가운데 겨우 절반 물량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장흥댐 물을 지난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으나 목포시(3만t), 장흥(7800t), 완도(56000t), 신안(46000t), 진도(89000t) 정도만 협약 물량의 50%를 넘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아직도 자체적인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 경우 장흥댐측의

배분 계획량 1만3000t의 15%밖에 되지 않는 2000t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광역상수도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악한 지방 재정상 막대한 상수도 관로 시설비를 충당하는 어려움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물 비용 또한 지자체로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물값은 t당 394원에 물 비용은 170원으로 지자체들의 기존 상수도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수도 관로도 지자체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주지만 각 가정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설치비

부담으로 인해 장흥댐 물 사용을 꺼리고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농어촌 지역의 이농과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유출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들과 과다하게 물 배분 협약을 맺어 수요예측을 빚나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공측은 댐 건설과 수도관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목적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약물량을 위반(기준미달 60% 포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값을 부과하는 등 별도의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日 대학 럭비대표 강진서 맹혼** 15일 강진군 남포구장에서 경희대 럭비팀 선수들과 일본 대학 럭비대표 선수들이 친선경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 최강인 일본 대학팀이 강진에 캠프를 치른 것이 알려지면서 상무와 포스코건설 등 국내 11개 팀 400여명도 강진에서 훈련중이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아기 주민증 발급 호응

강진군이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청 민원봉사과가 지난 4월부터 2012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아기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

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와 부모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고 있다.

아기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날짜와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뀔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나주 '마을 공동급식' 확대

#### 농번기 농촌일손 덜어주기 24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나주시가 바쁜 농촌 주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공동급식 시설이 갖춰진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급식지원 신청을 각 읍·면·동사무소와 시 농업정책과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예산 2억 6000여 만원을 들여 100개 마을 2000여 주민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했다고. 이는 지난해 77개 마을보다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마을이 100곳을 넘어도 급식이 가능하도록 추가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며 "농촌마을의 복지 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쁜 농번기철 번거로운 식사준비를 덜어줘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까지 만들어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 지역 문화소의 계층 초청 '시네마 콘서트'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24일 담양 문화회관 대공연장서

담양군은 오는 24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지원 사업인 '코리안 심포니 시네마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내 대표적 교향악단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자 백정현)와 오보에의 전미영의 협연으로 펼쳐지며 KBS 기상캐스터인 한희경씨의 해설로 진행된다.

연주곡은 미션, 태극기 휘날리며, 열기적인 그녀, 노다메 칸타빌레, 번지점프를 하다, 제미스본드 테마, 캐리비안 해적 등 우리들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회복지 시설과 아동지역센터 및 지역내 초·중학교 관현악단 등 문화소외 계층과 미래 지역문화의 주인공들을 초청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1985년 창단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에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미국 카네기홀과 LA 세리토스홀 순회공연으로 뉴욕타임즈 등 현지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으로 지방에 클래식 음악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 앞서 23일 오후 2시 담양의 해미복지재단에서 오케스트라 관현악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b@

## 전 북



**순창에 핀 바나나** 순창군 팔덕면 김중윤(57)씨가 3년전 농장 한켠에 심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바나나 열매가 열렸다. 국내에서 아열대식물인 바나나가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드문 일이다. (순창군 제공)

### 전북대 DB전문인력 양성 주력

전북대가 데이터베이스(DB)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DB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그동안 DB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DB 소프트웨어 및 교육 인프라를 대학에 기증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

에 따라 전북대에 다양한 DB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DB 관련 참여기업인 '엔코아'에서 DB 소프트웨어를 전북대에 기증하는 것을 비롯해 '웨어블리'에서는 DB보안 소프트웨어를, DB 관리 시스템 전문기업인 '큐브리드'에서는 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소프트웨어 등 총 3억3000여만원의 물품을 기증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군산대 교수진 모스크바 특별 연주회

'군산대 교수진 모스크바 특별 초청 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컬러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15일 군산대에 따르면 이번 초청 연주회는 전(全) 러시아 고려인연합회가 주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와 모스크바 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주회에서는 군산대 음악과 임옥희 교수, 최준지 교수, 이윤정 교수가 ▲차이콥스키의 12월 ▲요한 스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드비시의 목신의 오우 전주곡 ▲하차투리안의 사브레 댄스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리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12년간 10차례 침수 '서점의 눈물'

## 군산 동아서적 "도로 개선 요구 목살"

### 이번 폭우로 4만권 폐기 총 피해액 10억 웃돌아

"이제 더는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년간 운영하면서 무려 9차례의 침수피해를 겪었는데..."

군산시 나운동 동아서적의 주인 김인근(64)씨는 활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지난 13일 새벽 내린 444mm에 달하는 폭우로 건물 1층에 있던 서점 천장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4만여 권의 책을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10년과 지난해 여름 수해피해를 본 김씨는 올 여름을 앞두고 출입문을 교체하는 등 폭우 대비를

서들렀지만,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0년 이곳에 서점을 연 이후 지금까지 겪은 침수피해만 무려 10차례.

김씨는 이번 피해액 4억~5억원에 합하면 지금까지의 피해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년 피해를 되풀이하면 서도 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2002년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의 새 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심한 홍역을 치렀다.

문제는 동아서적을 중심으로 좌우 200m가 저지대 구간이어서 매년 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 서점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백로 고갯길, 맞은편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언덕이 자리하고 있어 폭우 시에 저지대인 이곳으로 급류가 쏟아져 들어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동아서적 옆에 있는 '한길문고'도 이번 침수피해로 6억~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등 이 일대 20여개 상점 주인들은 군산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애초 도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측이 수년전부터 도로 선형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매년 알고도 당하니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다"며 군산시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군산 비피해 100억 넘을 듯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검토

지난 13일 444mm의 폭우가 내린 군산의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절개지 3만4000㎡와 군산산업단지의 도로 200m가 유실돼 269억원의 피해가 났다.

군산산업단지 내 공장 등 15곳도 생산라인이 물에 잠겨 34억원의 피해를 봤다. 또 소통동, 산복동, 문화동 지역에서 주택 418가구의 상가 916동 등이 침수돼 17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3곳의 차량 870여대가 파손돼 피해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 이 밖에 농경지 3447ha 침수, 가축 폐사 등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만 98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군산시는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가 사유재산에 집중돼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지는 피해 규모 조사가 마무리돼야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액이 75억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군산시 공공시설 피해액은 28억여원으로 관련 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의 정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재민에게 긴급 복구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1%포인트 낮춰준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단 신

### 전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입법예고

전주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해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항,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책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1878명, 외국인 근로자 989명, 유학생 2265명 등 총 6050명으로,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부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익산문화재단, 서동축제 '먹거리 장터'

(재)익산문화재단은 '익산서동축제 2012'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익산시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맛과 인심을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마련한다.

먹거리 장터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익산지역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단체이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단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지역 특화음식을 선보여야 한다. 시는 12팀을 선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scf.or.kr)나 전화(063-843-8811)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고창서 16일 '하춘화 효 콘서트'

50년 열정의 영원한 국민가수 하춘화와 함께하는 '효(孝) 콘서트'가 16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하춘화씨는 2500여곡의 노래와 8000여회의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다.

하춘화씨의 이번 공연은 가수 인생 51년을 맞아 한평생을 함께 한 친구, 연인, 은사, 어머니 팬들에게 노래와 열정으로 보답하는 감사의 무대다.

대표곡인 '날 버린 남자', '영암아 리랑을 비롯해 신세대 가요와 외국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군산서 한일 청소년 하계스포츠타워

제16회 한·일 청소년하계스포츠타워가 16일부터 22일까지 군산시 일대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한국선수단 218명과 일본선수단 216명이 참가해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축구·배구·농구·탁구·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친선경기를 벌인다.

한국선수단은 전북대표팀으로 구성됐고 일본선수단은 나라현과 시가현 대표가 주축이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탐방과 오락·친교의 시간도 갖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